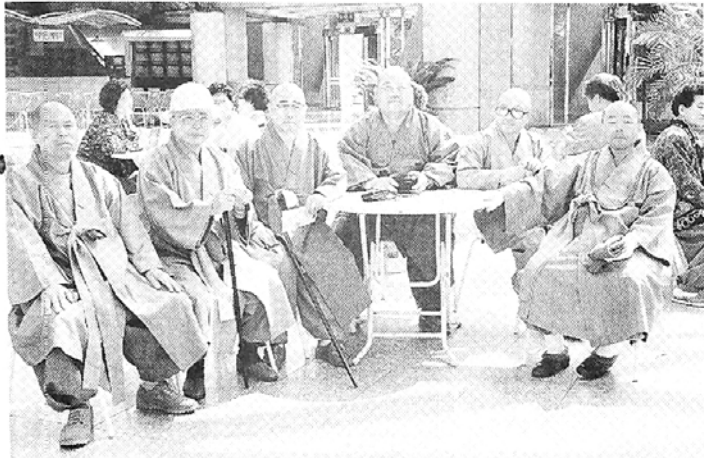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 아상이 벗겨 집니다”



◇사진 오른쪽부터 해인사법장 법전스님 일타스님 봉주스님 고통스님 승월스님.

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업연(業緣)이란 게 있습니다. 출가를 하든 속가에 머물든 말입니다. 제가 붓을 든것도 결국 나의 업연이라 해야겠지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각종비문과 사찰 담당의 현관글씨를 많이 썼습니다. 제주도 고관사의 환성지안대종사 순교비문과 해인사법종각 현관글씨는 그중 하나입니다. 지안스님은 청허 휴정스님(서산대사)

해인사는 지금과 달리 4월초과일이나 백중때나 사람들이 몰려올까 평소에는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골짜기를 더듬어 해인사에 당도하니 무슨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불도를 공부하러 왔으니 주시님을 뵙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가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퇴실담으로 가게 됐지요. 50~60대로 보이는 말씀하면서 비범해 보이는 한스님

**견문이 좁은 사람일수록 자기주장 강하고 융통성 없어요 지극한 하심으로 수련하다 보면 탐진치는 조금씩 소멸됩니다**

어쨌든 혼해스님이 견성법에 화두참선이 제일이라고 해 선방에 들었습니다. 아는데 힘인데 겹치기만 비구여야 되겠다 싶어 고통을 참아가며 정진했습니다. 적지사 도리사등에서도 공부했지요. 그런데 빨리 깨쳐야겠다는 조금한 마음에 욕심이 앞서다 보니 감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기증세에는 백약이 소용없습니다. 한동안 꽤 고생을 했습니다. 좌선을 잘하려면 몸은 부드럽게 하고 마음은 평온하게 해야합니다. 몸이 부드러우려면 음식을 절제할 줄 알아야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합니다. 마음은 화두일념으로 나아가되 다른곳에 집착하는바가 없어야합니다. 빨리 깨치겠다는 생각도 집착입니다. 몸이 뻣뻣하거나 긴장한 상태로 좌선을 오래하면 상기증세가 나타납니다. 또한 마음에 집된 번뇌망상이 많으면 몸은 끈적하고 앉았는데 마음이 온갖곳으로 나돌아다니게

기 주장이 강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한쪽의 좋은 작품은 백반을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고 감각(感覺)을 씹으면 처음에는 뽕지만 씹을수록 맛이 나듯 하심하는 자에게는 그와같은 공덕이 스며듭니다. 하심하는자에게는 여백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습니다. 서양화와 달리 한국화는 여백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합니다. 흔히 한국화는 여백의 예술이라고도 하지요. 먹으로 나타내어진 그림구도가 여백에 의해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여백은 단순한 빈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구도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서 재역할을 하는것, 이것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내는 하심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상과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가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완벽한 선지식은 아상은 물론이거니와 생사(生死)까지도 쉽게 넘어갈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무릇 타인을 가르치려면 삼생의 인연 도리는 알아야합니다. 전생에 하던 공부를 현생에 이어갈수 있게끔은 할수 있어야 남을 가르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잡동사니 철학에다 쫓아들든 풍월이나 을 조려서야 밤낮 분별심비 경계를 벗어날수 없습니다. 신라 법공스님은 6세때 벌써 3생인연을 꿰뚫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사람은 임태출태시에 매해버리고 맙니다. 오고감이 없는 무생멸경지에는 이르러야 선지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요즈음 사회가 혼탁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스승과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제대로 된 교육과 정치력의 부재에서 유래합니다. 이러한 병리현상을 치유하려면 자존심을 회복해야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자존심이 강해아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모방하는데 미쳐 있어서야 어떻게 나라를 지킬수 있겠습니까? 아집과 아상만 강하지 진정한 자존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동등의 권리만 좇고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제구실을 못합니다. 여성이 여성다운 때 남성이 남성다운 때 세상은 조화가 이뤄집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계층 세력간 갈등이 심각한데...

문 사람들의 이기심때문에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계층간 지역간 세력간의 갈등이 심각한데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노승호·경기 오산시 천호동)

답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부산서 왔든 광주서 왔든 대구서 왔든, 어디서든 오긴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는 길은 알아도 되돌아가는 길을 모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큰 혼란이 생기겠죠.

우리에게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어서 이 두길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쳐서 작용을 해야만 보이지 않는데서 보이는대로 나고 들며 돌아갈 것인데 그게 조화롭지 못하니깐 그냥 어지럽고 곤경이 닥치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다들 물질세계의 관습에 사로잡혀서 여지껏 살아온 방식대로 인과 업보 유전 관념... 이런 걸로 꼭 통치

답 그게 이중이라고 보질 않습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주인이 있으니까 욕심을 갖춰서 나왔고 나왔으니까 어느 것 하나 그날이 없이 들이고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지 제각각 떨어져 있는 것인가요?

누가 악을 쓰고 떠드니까 절로 눈이 가고 귀가 가고, 그래서 판단이라는게 생기고... 그렇게 호응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그게 따로따로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그 공부했다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오니까? 앞서 임력한데서 나온 것이니까 거기가 되돌아와서 하는 것이지요. 나온데다 되돌려라,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안된다고 말 할게 아니라 안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법도 있을 테니까 거기가 되 말거라 이것이지요.

인젠 공공연하게 내일 아침 쌀거리가 떨어졌다고 야단이 났더랬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으냐고 발을 구르는



독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생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기도 좋습니다. 순서대로 응대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총림 대흥사님께 물고 답을 돌려서 편지가 정리·제대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88

문 으니까 부작용 투성이고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공덕이 없습니다. 모두들 '개별적인 하나'의 생각으로 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라 말이예요. 포괄적인 하나이지.

마음이란 게 없어서 수만개를 이룰 수도 있고 하나로 만들수도 있고 그 하나마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계에 눈 뜨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형상계에만 매달려 살고 있으니 이진 오는 길만 알았지 가는 길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거죽만 알았지 뿌리 깊은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파리 나고 가지구 나고 열매 맺는걸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서, 마음 속 깊에서 자기의 근본이 발현되어야만 제대로 굴릴 줄도 알고 대처할 줄도 알게됩니다.

### 이중적 성향이 고민입니다

문 저는 유달리 이 일 저 일 현실문제에 대해 욕심이 많습니다. 특히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좋은 때는 공부를 잊고 감각적으로 누리려 하지만 고통스러울 때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주인공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성향을 어떻게 합니까.

(전재석·인천시 남구 주안동)

문 데 운동 사람으로 야단법석이란 말입니다. 이 공부를 하면 돌에 세워놓아도 산다고 했는데 내일 아침엔 당장 밥 굶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밤중에 누가 쌀거리를 신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연고냐? 말없는 곳에 마음의 끈이 다 가실어 되어있습다. 바로 무심도이죠. 그래서 이 법은 광대무변한 묘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믿지 못하고, 제 마음 다스려서 믿고 놓을 줄을 모르니까 이거 50%, 반쯤이 되고 가는 길 밖에 모르는 꼴이 됩다 이겁니다.

문 좀 어설피면 어떻게 잘 안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다 거기서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좀 믿고 맡겨 보아야 발전이 있고, 발전이 있어야 풀아니게 마음의 광력 자력 통신력이 발현이 되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 공부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에 머물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밤중에 쌀을 가져온 사람은 왜 그랬느냐? 내일 밝은 날에 살고와도 되는데 그 밤중에 꼭 그렇게 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심한 가운데 끈과 끈으로 연결해 놓은 것처럼 서로가 다 직결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전체가 가실된 상태이지요. 세상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 믿고 맡기는 것 입니다. 무조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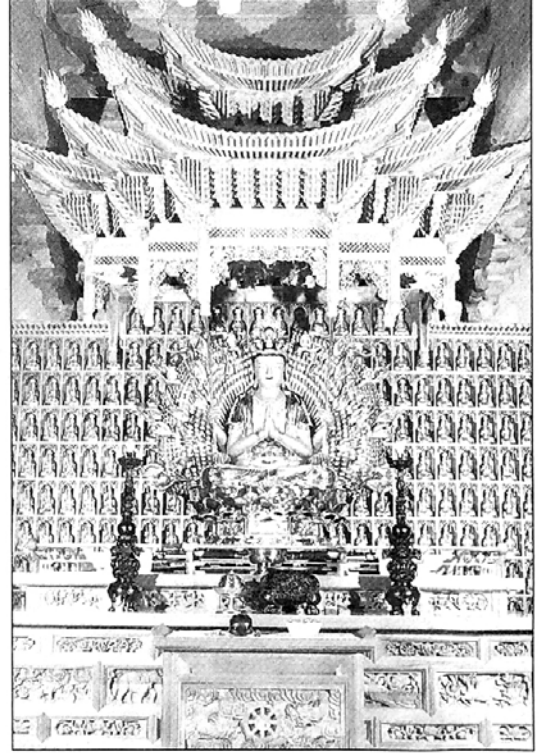
## 빨리 깨쳐야겠다는 조급함도 욕심 “놓는다는 생각마저 놓고 정진하세요”

문 을 이어 월담 설제스님으로 내려오는 정동불맥을 이은 분입니다. 휴정스님은 북한자루로 가슴속에 있는 일만부처를 그려내어도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상(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치 단하스님이 한 스님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목불(木佛)을 부셔서 팔감으로 사용했듯 아상은 철저히 부셔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에서 그리 말지않은 합천군내에 있습니다. 어릴 때 문득문득 '도인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도인이 된다는게 무척 근사하게 여겨졌지요. 도인이 되면 생사가 없어지고 신봉자재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던 그런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해방이 되던해로 기억됩니다. 한문공부를 많이 해서 주변의 흠모를 받던 한 번이 해인사로 공부하러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도는 불도가 제일이라고 해요. 당시

이 게였습니다. 스님이 어디서 뭇하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어디서 뭇하러 왔느냐고 다시 쿡쿡대요. 머속한 기분이 들었지만 앞서 말한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거기서 오기전에는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부모에게서 왔다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그이전에는 어디서 왔느냐고 또 물어요. 그질문에는 그만 막혀버렸습니다. 막막했어요. 하는수 없이 "모르겠습니다"고 말씀드렸더니 스님은 먼저 그것을 안 연후에 오라며 두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와서 몇날 며칠을 궁리해보도 알 도리가 없어 결국 다시 입산했습니다. 은사이신 혼해스님은 32살에 강사를 하실정도로 걸출한 분이셨습니다. 통도사의 대강백 오해련스님도 혼해스님한테서 <화일경>과 <법화경>을 배웠다고 하니까요.

문 되니 심신이 일여(一如)하지 않아 쯤이 추시고 콧병이 생기게 되는겁니다. 좋은 생각도 놓고 나쁜 생각도 놓고 놓는다는 생각마저도 놓아 나가야합니다. 깨친뒤에야 마음이 있으니 상관없지만 수행과정에서는 몸과 마음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유하심자 자귀의만복(凡有下心者 自歸依萬福)이라 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낮추는자에게는 만가지 복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어쩌면 이 하심이야말로 수련의 알파요 오메가인지도 모릅니다. 지극한 하심으로 수련하다보면 아상이 차츰 벗겨지고 탐진치도 조금씩 소멸되어 갑니다.하루 세끼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은혜가 지중한다든 감투에다 중상모라키나 일삼는 무리들은 업만 짓고 있는줄 알아야합니다. 하심이 안되는 이유는 '나'라는 생각과 욕고 그물에 대한 분별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견문이 좁은 사람일수록 자

##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공불사, 천불감실
  - 내부정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